

정형외과학회소식

Newsletter of the Korean Orthopaedic Association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6대 회장 취임사 |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6대 이사장 취임사 | 2023년도 제66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 KOA Visiting RCOST | 학회 회원 공지 | JKOA 공지사항 · CIOS 공지사항 | 정원책정지도전문의 논문 접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 국내학술행사 | 회원동정 · 회의실 대관 안내 | 모집 공고 |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및 고액 기부자 명단 |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 동양고전산책 | 출간소식 | 각종 캠페인 안내 · 질환별 팸플렛 안내

회장 김기택 · 이사장 정홍근 · 총무이사 이준규



11

2022 November vol.393

“Proven Long-term Efficacy & Safety¹⁻⁴ Synovian[®],”

1,561,754

| Global 시노비안 누적처방건수 ('14.3~'20.2 기준)[†]

[†] 국내_심평원 빅데이터, 해외_수출 수량

시노비안[®] 주

• **주성분** : BDDE가교하이드로콜로이드 3g (BDDE가교하이드로콜로이드(으)로서 60mg) • **성상** : 무색투명하고 점조성이 있는 겔이 워, 아래가 고무마개로 막힌 플라스틱 관(프러필드 시린지) 속에 든 주사제
• **효능·효과** : 관절의 골관절염 • **용법·용량** : 성인 1회, 1관을 술관절강 내에 투여하나, 증상에 따라 투여 간격(6개월 이상)을 고려하여 적절히 투여한다. • **사용상 주의사항** :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투여 관절강에 감염 또는 심한 염증이 있는 환자 3) 투여부위의 피부에 감염 또는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른 약물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 **설명서 개정년월일** : 2019년 7월 8일
※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최신의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LG화학 홈페이지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Ha CW et al, BMC Musculoskelet Disord, 2017 May 26;18(1):223 2. Lee JK et al, Rheumatol Int, 2017 Nov;37(11):1807-1815. 3. LG Chem, Data on file Synovian[®] PMS report, LG-HAPMS001 (14 Jan, 2020) 4. LG Chem, Data on file Synovian[®] Observational study report, LG-HACSO006 (14 Feb, 2020)

Synovian[®] Inj.

SYN-BR-A001-A-MAR20

정형외과학회소식

2022 November vol.393 11월호



Contents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6대 회장 취임사	04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6대 이사장 취임사	05
2023년도 제66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06
KOA Visiting RCOST	08
학회 회원 공지	10
JKOA 공지사항·CIOS 공지사항	11
정원책정지도전문 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12
국내학술행사	13
회원동정·회의실 대관 안내	15
모집공고	16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및 고액 기부자 명단	17
의료중재원 감정사례	18
동양고전산책	20
출간소식	23
각종 캠페인 안내·질환별 팸플릿 안내	25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6대 회장 취임사



김기택
동탄시티병원

존경하옵는 자문위원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에게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회의 위상과 회원님들의 학회 사랑을 생각할 때는 학회장이란 막중한 임무가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난 일 년간 차기 회장으로 학회 업무를 배우면서 그동안 학회를 이끌어 오신 분들의 고민과 그 노고를 몸으로 느낄 수 있었고, 훌륭하신 선배 회장님과 이사장님의 현명하심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일년이란 재임 기간이 짧아하고자 하는 일에 시간이 부족하게 느낄 수도 있었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다는 속담대로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행동하는 자세로 일 년을 지내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선 이 시기에 IoT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학문의 융복합, 산학 연계 과제들이 우리 앞에 거대한 한 산처럼 서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학회로서의 역할,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는 진료과들의 영역 갈등, 평균 수가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된 의료보험의 제도, MZ세대들과의 소통 문제 등 우리 학회가 대처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물론 이 많은 일들을 한해 동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임기 중에 65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9000여 명의 회원을 아우르는 회장으로서 조용히 일하면서 알찬 결실은 맺는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전임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준비해온 외부 자문의 결과를 충실히 수행하여 65년이 넘는 역사를 갖는 학회 다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학회가 되도록 개선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정홍근 이사장이 의욕을 갖고 시행해 보고자 하는 신사업에 회장으로서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정형외과 관련 학회들과 상생의 길을 찾도록 회장답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사장 때 시작된 학회 건물 준비 모금 운동을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상이 급변하는 4차 산업 혁명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존할 수 있는 학술 친목단체로서 전공의 교육과 회원들 간의 소통과 교육등 시스템 구축에 좀 더 신경을 써보고 싶습니다.

다섯째로는 정형외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정관계, 사회적 노력을 앞장서고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중 모든 추진 사항은 학회 내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의논하고 위임을 받아 시행에 옮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좋은 성적표를 받도록 정홍근 이사장, 이준규 총무이사과 함께 혼연 일체가되어 혼신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회원들의 사랑과 관심, 존경하옵는 자문 위원님들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충고와 격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자문위원님, 회원님들의 가족과 모든 일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66대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 김기택



대한정형외과학회 제66대 이사장 취임사



정홍근
건국대학교병원

존경하는 자문위원님들과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이번 2022년도 대한정형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통해서 학회 이사장에 취임하게 된 건국대병원의 정홍근입니다.

1년간 새로운 임기를 맡은 이사장으로서, 자문위원님들과 여러 회원분들께서 그동안 이룩해 놓으신 대한정형외과학회의 계속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학회 발전계획을 제시하면서 이를 성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1) 학문적으로는 저희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가 명실상부 아시아에서 가장 구심점이 되는 정형외과 국제학술대회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APOA SICOT 등 여러 정형외과 국제학술대회들을 한국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서울지역과 이외 지역의 회원분들 간의 긴밀한 교류와 끈끈한 화합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지방 회원분들이 정형외과 학회 위원회 활동이나 혜택 부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으며, 학회 이사회의 지방 개최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 3) 학회의 오래된 숙원인 저평가된 정형외과 수가의 확실한 개선과 새로운 비급여 수가 창출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자문팀 구성과 여러 정부 의료부서와의 활발한 전략적 교류를 학회의 최대 중점과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복지부 관련 공직자와 의료 관련 정치인 및 기자들과 정책토론회 및 긴밀한 교류를 추진하여 수술비 저수가로 인한 정형외과 전문의들의 수술 기피에 따른 파행과 전반적 질적 황폐화 및 이에 따른 전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 4) 현재 저희 학회가 직면하고 있는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류마티스학회와 마취통증의학과 등 여러 타과의 우리 학회 영역 침범에 따른 장래 생존의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다방면으로 필사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확실히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 대외적으로 비전문가들의 정형외과 영역 침범에 대해서 엄격하고 구체적인 법률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 이외에 정형외과 영역에 대한 학회 전용 전문 유튜브 방송의 개설과 전 국민 홍보 방송을 추진하겠습니다.
- 5) 학회의 오랜 숙원사업인 학회사무실 건물 신축 또는 구입을 위해서 대한정형외과학회 산하 분과학회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 자금 모금의 획기적 증대를 통해서 학회 건물 구매 또는 신축을 짧은 장래에 현실화하겠습니다.
- 6) 기업 임상술기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임상 술기 교육활성화를 이루고, 류마티스학의 정형외과 영역 내에서의 획기적 교육 강화를 이루어 이 분야를 다시금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7) 지난 집행부가 시행한 학회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김기택 회장님, 이준규 총무과 단결된 한 팀이 되어 위의 여러 과제를 모두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으며, 존경하는 여러 자문위원 선생님들의 그동안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장해온 대한정형외과학회의 계속된 발전을 위해 한 줌의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66대 대한정형외과학회 이사장 정홍근



2023년도 제66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 안내

1. 시험 일시 및 합격자 발표

시험 구분	시험 일시	합격자 발표일
1차 시험	2023년 2월 6일(월), 13:00~	2023년 2월 9일(목), 14:00
2차 시험 (객관식)	2023년 2월 13일(월), 09:00~11:30	2023년 2월 20일(월), 14:00
2차 시험 (구술시험)	- 비수도권 응시자: 2023년 2월 13일(월), 13:00~ - 수도권 응시자: 2023년 2월 14일(화), 09:00~	

※ 합격자 발표 및 확인은 대한의학회 홈페이지(<http://www.kams.or.kr>), 전문의 자격시험 홈페이지(exam.kams.or.kr)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1차 시험 안내 - 필기

1) 시험일시 및 장소

- ① 일시 : 2023. 2. 6.(월), 13:00 ~ 17:30
- ② 장소 : 삼육대학교, 한국삼육중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서울시 노원구 소재)

2) 시험시간, 문제 수, 배점, 분야별 문항 수

교시	시험시간	문제유형	문제 수	문제당 배점
1교시 (13:00~15:00)	120분	객관식	80문제	0.625점
휴식시간 (15:00~15:30)	30분			
2교시 (15:30~17:30)	120분	객관식	80문제	0.625점
총계	240분		160문제	100점

() - 외상 문항 수

구분	고관절	슬관절	족부 족관절	척추	견주 관절	수부	소아	종양	외상 (일반)	감염 대사	기초 재활	총계
문 항 수	17 (2)	18 (3)	15 (2)	18 (3)	15 (2)	18 (3)	19 (5)	10	13	8	9	160

3) 응시자 유형별 고사장

응시자 유형		고사장	
무증상	일반 응시자	일반 고사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확진자	코로나19 진단받고, 격리 또는 치료 중인 자	확진자 고사장	

3. 2차 시험 안내

1) SBT 시험 (객관식)

- 시험방식 : 태블릿 PC로 답안작성
- 필수지참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2) 구술시험

- 시험방식 : 정형외과일반 구술시험, 자동 추첨으로 문제 선택
- 필수지참 : 수험표, 신분증, 응시 서류로 제출한 논문, 수술기록지, 전공의 기록부(서류별 제본)

3) 시험일시 및 장소

- ① 일시 :
 - SBT 시험 : 2023. 2. 13.(월) 09:00~11:30 (08:30까지 입실 완료할 것)
 - 구술시험 : 2023. 2. 13.(월) 13:00~18:00
2023. 2. 14.(화) 09:00~18:00
- ② 장소 : 용산철도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
- ③ SBT 시험 시간, 문제 수, 분야별 문항 수, 배점

교시	시험시간	문제유형	문제 수	문제당 배점
1교시 (09:00~11:30)	150분	객관식 (사진 또는 영상문제)	100문제	0.7점

() - 외상 문항 수

구분	고관절	슬관절	족부 족관절	척추	견주 관절	수부	소아	종양	외상 (일반)	감염 대사	기초 재활	총계
문 항 수	12 (2)	12 (2)	7 (1)	12 (2)	7 (1)	12 (2)	14 (4)	6	6	5	7	100

④ 2차시험 점수: SBT 시험 + 구술시험 = 총 100점

4) 응시자 유형별 고사장

응시자 유형		고사장	
무증상	일반 응시자	용산철도고등학교	일반 시험실
유증상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I, II
확진자	코로나19 진단받고, 격리 또는 치료 중인 자		

4. 수험자가 확진자 통보를 받고 학회로 알리지 않을 경우 시험 준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OA Visiting RCOST

Guest Nation으로서 대한정형외과학회의 태국정형외과학회 학술대회 방문기

2022년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태국 Pattaya Exhibition and convention hall (PEACH) 에서 개최된 제44차 태국 왕립 정형외과학회 (Royal College of Orthopaedic Surgeons of Thailand (RCOST)) Annual meeting 에 대한정형외과학회가 Guest Nation으로 초청되었다. 이는 제66차 대한정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 태국을 Guest Nation으로 초청하여 학술교류를 시작한 데 따른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제 65대 집행부 및 여러 회원들이 참여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다. 이번 학회에는 총 2,802명 (외국인 65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인 참석 인원은 30여 명으로, 총 33개의 강의 및 연제 발표를 진행하였다.

태국 왕립 정형외과학회에서 공식 초청한 Guest Nation 으로서의 일정은 학회 전날인 10월 20일 저녁 Royal Cliff Beach Hotel에서 개최된 Korean–Thai Cultural Night를 시작으로, 학회 첫날인 10월 21일 오전 Wisdom of KOA 세션을 주최하였으며, 저녁 Presidential dinner에 참여하였으며 마지막 날(10월 22일)의 Congress dinner 참석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종료하였다. 그 외 학회 기간 동안 김명구 회장과 이진우 이사장은 여러 행사와 심포지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많은 회원들이 KOA session를 포함한 많은 심포지엄과 학술 세션에 참여하였다.

행사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대한정형외과학회의 로고를 비롯하여 (Fig 1, 2) 집행부, 참여인원에 대한 프로필과 사진이 게시판과 대형 전광판에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고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학회장 내의 meeting room에서도 태국과 한국 양국의 국기를 배경으로 한 화면이 항상 띄워져 있었다. Meeting room 밖에는 행사장 한가운데에 'Travel to Korea begins again'이라는 이름의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Fig 3), 태국 현지인이 한복을 곁에 차려 입고 한국 관광정보 및 한복 등 전통문화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문화교류를 하였다.

학회 전날은 RCOST 에서 준비한 전야제인 Korean–Thai Night 가 있었다. 한국과 태국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행사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RCOST 회장인 Thanainit Chotanaphuti 선생님의 축사가 있었다. 각종 맛있는 전통요리와, 전통복장을 입은 직원들의 공연 및 성대한 환영이 있었던, 학회의 전야제로 부족함이 없는 자리였다.

첫날의 'Highlights of Orthopaedic in East Asia' 세션이 KOA 연자들이 주축이 된 첫 세션이었다. 연세의대 김성환, 박광환 교수, 서울의대 조태준, 장중범 교수가 기초 분야에서부터 임상 분야에 이르기까지 4개의 연제를 발표함으로써 첫 세션을 시작하였으며, 두 번째 세션으로 김명구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명의 KOA 연자들(연세의대 이진우, 박시영, 천용민, 최윤락, 성균관의대 왕준호, 중앙의대 이재성, 전북의대 윤선중)의 강의로 구성된 'Wisdom of KOA' 세션을 진행하였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수님들의 강의에 몰입하고, 열정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박수를 보내는 모습은 한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었다. 점심 식사 후 진행된 'Meet the East Asia Experts' 세션의 총 6개의 강의 중에서도 연세의대 이진우 교수, 가톨릭의대 박중범 교수, 고려의대 오종건 교수의 총 3개 강의가 진행되어, 동아시아에서 한국 정형외과가 차



▲ Fig 1



▲ Fig 2



▲ Fig 3



▲ Fig 4



▲ Fig 5

지하는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 3시부터는 Opening ceremony 가 진행되었는데, 양국 회장님과 RCOST 임원진들이 단상에서 징을 울리며 학회의 시작을 알렸다 (Fig 4). 이후 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인 문승현 대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여, 본 행사가 태국의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받는 행사임을 느낄 수 있었다 (Fig 5). 저녁에는 RCOST 회장님께서 KOA를 위해 준비한 Presidential dinner 가 Royal Cliff Beach Hotel 에서 개최되었다.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고 직전, 현, 차기 RCOST 회장 및 임원진, 한국과 친분이 있는 많은 유명한 태국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하며 친목을 다졌다. 한국과 태국 두 나라 회장님들의 축사 및 노래에 이어 전통 공연 등이 진행되며 Reception 의 분위기를 돋우었고 많은 분들이 대단히 기분 좋게 자리를 즐기면서 성황리에 첫 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Fig 6, 7).

둘째날에는 특이하게, 함께 5Km의 달리기를 하는 RCOST RUN이라는 아침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오전부터는 이번 학회의 모토인 'Say Yes to the New Adventure' 세션과 'Evidence Based in Orthopaedic' 세션에서 Platelet-rich plasma (PRP), 3D printing 등 emerging technique 에 대해 KOA 회원들의 강의를 이어져 청중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저녁에는 RCOST 에서 준비한 Relaxing Evening in Pattaya 가 진행되어, 편안하고 이국적인 분위기에서 편안한 저녁만찬을 즐길 수 있었다. 학회 마지막날인 셋째날에는 족부 분야 Steven L. Haddad 선생님 등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진행하는 각 분과 별 Specialty day 가 진행되었으며, 저녁의 Congress dinner 행사를 마지막으로 학회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전체적으로 성황리에 학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VIP guest nation라는 이름 및 동아시아 지역의 정형외과를 선도해 나가는 그룹으로서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였다고 총평 할 수 있겠다.



▲ Fig 6



▲ Fig 7

학회 회원 공지

1. 학회 홈페이지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님들께 중요 안내사항 등을 문자, 이메일 및 수령을 원하시는 주소로 발송하고 있으나 누락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홈페이지(www.koa.or.kr)에서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를 수정 요청드리오니 로그인하시어 개인정보수정에서 회원님의 가장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바랍니다.

* 중요 업데이트 회원 정보

• 현재 소속병원 • 우편물 수신처 • 주소 • 이메일 주소 • 휴대전화번호

* 회원정보 수정은 홈페이지(www.koa.or.kr) 로그인 후 상단의 "MY PAGE"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매월 소식지에 안내되는 회원 동정란은 회원들의 경조사는 물론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을 게재하는 공간입니다. 소식 공지를 원하시는 경우 학회 이메일 ortho@koa.or.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학회 정기 간행물 발송 현황 안내

종류	발행 주기	발송 구분	우편 구독 비용
소식지	매월 말일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만65세 이상 회원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	유료 구독 신청 불가
국문학회지 (JKOA)	연 6회 격간 (2, 4, 6, 8, 10, 12월)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만65세 이상 회원은 우편 및 이메일 발송 3) 유료 구독 회원 우편발송	연 48,000원
영문학회지 (CiOS)	연 4회 계간 (3, 6, 9, 12월)	1) 회원 전체 이메일 발송 2) 유료 구독 회원 및 자문위원 우편, 이메일 발송	연 32,000원

※ 유료회원은 우편발송 대상이 아닌 회원 중 우편료를 선납해주신 회원입니다.

JKOA 공지사항

- 대한정형외과학회지는 현재 한국연구재단(구,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입니다.
-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투고를 받지 않습니다. 영문논문은 가급적 CiOS에 투고 부탁드립니다.
- 국문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허가를 받은 심사완료된 논문은 저자변경이 불가함을 공지합니다.
- 연구 윤리의 원칙에 저자됨은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해야 하나 본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들 중에 실제 연구 및 논문 작성에 기여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수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저자들을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저자 수에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종례 보고에는 4명 이하(전공의 1인) 원저에는 6명 이하(전공의 2인까지) 종설에는 3인이하 제한된 수 이상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학회에 제출하여 편집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들 등록된 저자 이외에 기여한 사람은 Acknowledgement에 넣습니다. 단, 다기관 공동 연구(Multi-center study) 등 상기 규정된 저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이 논문에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편집위원회의 허가를 득한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원고 투고 시 저자고유식별 번호(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입력은 필수사항입니다.
- 대한정형외과학회지에 투고한 동일한 내용의 연구물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타 학회지에 중복해서 투고하는 것은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 윤리규정 제1절 제3항 "연구물의 중복 투고 및 게재 혹은 이중 출판 금지"의 위반이므로 이런 경우에 징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신속심사제도에 관하여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 심사는 정규 심사 과정이 기본이나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기준 등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별하여 신속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 안내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심사제도는 선별적으로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며 "가급적 채택"이 아닙니다. 총 60일 이내의 심사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수정 후 재투고' 판정 후에 재투고 기간이 늦어지면 60일 이내의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재투고 판정시 투고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 기준의 사유로 신속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매년 8월 말까지만 신청을 접수 받고 진행을 하며 수정 후 재투고가 늦어져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정된 기한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유일 경우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 점 꼭 양지하시고 가급적 정규 심사과정을 통하여 학회지 논문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한정형외과학회 사무국에 전송(팩스 : 02-780-2767 또는 이메일 : ortho@koa.or.kr)하고 위원장의 타당성 승인 후 별도의 심사로 30만원을 학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속심사 시행이 심사위원의 논문 게재 허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대한정형외과학회)

CiOS 공지사항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영문 저널 CiOS (Clinics in Orthopedic Surgery)가 SCI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논문 투고와 적극적인 논문 인용으로 힘써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편집진은 앞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로 SCI 등재 유지는 물론 명실상부한 정형외과 대표 국제 저널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문학회지 편집위원장 김한수 배상

- CiOS는 현재 SCI, SCOPUS, PUBMED, MEDLINE, 한국연구재단(KCI)에 등재된 학술지입니다.
- 정형외과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자격 요건 중 CiOS 또는 대한정형외과학회(JKOA)에 반드시 논문 한 편 이상 게재가 필수사항입니다.
- 원고 투고 시 저자식별번호 ORCID No.를 반드시 표기하시고 연구비 지원 기관이 있는 경우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SCI 논문은 2019년 3월호(11권1호)부터 적용되며 Journal Impact Factor™ (JIF)는 2022년 6월 부여되었습니다.
- 2022년 7월 기준 CiOS IF 지수는 2.503입니다.



학회 수련실태조사 평가 문항 중 정원책정지도 전문의 논문 점수 및 대상학회지 안내

• 지도전문의 논문 점수 대상 학회지 및 배점

1. 대한정형외과학회지(통합된 학회지 포함) 및 정형외과영문학회지(CiOS), SCI(E), Scopus 논문 중 원저와 종설은 **2점**, 증례보고는 **1점**을 부여하고, 관련학회 학술지는 학술지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점수를 인정한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의 원저와 종설은 **1점**, 증례보고는 **0.5점**을 부여하고, 해당 학술지는 골절, 스포츠의학, 척추, 족부족관절,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 견주관절, 류마티스, Osteoporosis and sarcopenia(구, 골다공증학회지), AOSM(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학회지이다.

2)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의 원저와 종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하며, 해당 학술지는 척추신기술학회 학회지이다. (기타 관련 및 분과학회지가 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가 될 경우 1점을 인정한다.)

3) Scopus에 등재된 저널은 SCI(E)와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하다.

Scopus 등재된 관련학회 학술지: Asian Spine journal, JBM(구, 골대사학회지),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 (구, 슬관절학회지),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

4) SCI(E) 또는 Scopus에 등재되지 않는 해외학회지의 원저와 종설은 **0.5점**, 증례보고는 **0.25점**을 부여한다.

5) 정원책정 지도전문은 당해 연도 1점 또는 직전 4년에 3점 이상의 논문 점수가 되어야 인정된다.

(1) 직전 4년 논문 점수 산출시 이미 사용하였던 논문은 중복되게 사용하지 못한다.

(2) 당해 연도란 전년도 3월 1일 ~ 해당 연도 2월 말까지를 말한다.

• 2021년도 당해연도: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 2021년도 직전 4년: 2017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말까지

2. 대한정형외과학회지 및 대한정형외과 영문 학회지(CiOS), SCI(E)는 당해 연도 기간 내에 채택(accepted) 되거나 E-pub된 경우, 논문으로 인정한다.

3. 정형외과와 관련된 전문 서적 및 기타 학회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수련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제1저자 또는 통신저자는 전체 점수를 주고, 나머지 저자는 주어진 배점을 논문 작성자 수로 나눈 점수를 부여한다.

※ 통합 학회지의 논문 점수 인정에 관한 건

[JKOA와 통합 전 발간] 골관절종양학회지 1점

골연부조직이식학회지, 정형외과초음파학회지, 정형통증학회지, 정형외과연구학회지 0.5점

[JKOA와 통합 후 발간] 대한정형외과학회지와 동일한 점수로 인정

※ 통합학회 : 대한골관절종양학회,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대한정형통증학회, 대한정형외과 컴퓨터수술학회, 대한정형외과연구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운동계측기세포재생의학회

※ Archives of hand microsurgery(대한수부-미세수술 통합학회지)의 경우 통합 전 수부외과학회지와 미세수술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통합 전 발간된 논문 점수] - 대한수부외과학회지: 원저&종설 1점, 증례보고 0.5점

- 대한미세수술학회지: 원저&종설 0.5점, 증례보고 0.25점

※ SCOPUS 등재 시점에 따른 점수 안내

- JBM(구, 골대사학회지)의 경우 2019년 SCOPUS 등재되어 2019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종설 1점, 증례보고 0.5점

- The Journal of Hand Surgery(Asian-Pacific Volume)의 경우 2018년 SCOPUS 등재되어 2018년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종설 0.5점, 증례보고 0점

- Knee Surgery and Related Research의 경우 2020년 5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종설 1점, 증례보고 0.5점

- Hip and pelvis(구, 고관절학회지)의 경우 2021년 2월에 등재되어 이전에 발간된 논문의 점수는 다음과 같다. [SCOPUS 등재 전 발간된 논문 점수] 원저&종설 1점, 증례보고 0.5점



국내학술행사

1. 대한골절학회 제13회 연수강좌

• 일정 : 2022년 11월 20일(일), 09:00~16:30, 온라인

• 문의 : Tel. 031-551-1810, E-mail, fxsociety@kofs.or.kr

2. 제25회 고려대학교 관절경 카데바 워크숍 (Advanced Course)

• 일정 : 2022년 11월 26일(토), Knee 07:40~18:00 / 2022년 11월 27일(일), Shoulder 07:40~18:30

• 문의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5층 실용해부실습실

3.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정 : 2022년 11월 26일(토), 양재 aT센터 4층 창조룸-1

• 문의 : Tel. 02-2290-8485, E-mail, hyos8485@daum.net

4. 삼성서울병원 The 14th SMC Shoulder Symposium

• 일정 : 2022년 11월 26일(토), 올림픽 파크텔 올림피아홀

• 문의 : Tel. 02-3410-3501, E-mail, smc.seul@gmail.com

5. 대한족부족관절학회 연수강좌

• 일정 : 2022년 11월 26일(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지하1층 CJ Hall

• 문의 : E-mail, kfas1991@naver.com

6.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제8차 연수강좌

• 일정 : 2022년 11월 27일(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2층 이견회를

• 문의 : Tel. 062-220-3147, E-mail, office@kossm.or.kr

7. 건국대학교병원 개원의 심포지엄

• 일정 : 2022년 12월 3일(토), 건국대학교병원 지하 3층 대강당

• 문의 : Tel. 010-2862-7448, E-mail, 20200067@kuh.ac.kr

8. 명지병원 정형외과 개원의 연수강좌

• 일정 : 2022년 12월 3일(토), 명지병원 농천홀 (T관 6층)

• 문의 : 홈페이지 <http://mjhos.modoo.at> / Q&A게시판

9. 2022 Catholic Orthopedic Symposium III

• 일정 : 2022년 12월 4일(일), 온라인 진행

• 문의 : Tel. 02-2258-2838, E-mail, cmcos2018@naver.com

10. 대한 줄기세포·조직재생 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정 : 2022년 12월 4일(일), 중앙대학교병원 송봉홀

• 문의 : Tel. 010-8236-6542, E-mail, str10kr@gmail.com

11. 2022 34th Severance Arthroscopy Symposium : Shoulder (ISAKOS & AAC Approved Course)

- 일정 : **2022년 12월 4일(일)**, 온라인 진행
- 문의 : E-mail, aac2008@daum.net

12. 대한척추외과학회 연수강좌

- 일정 : **2022년 12월 10일(토)**, 온라인 진행
- 문의 : Tel. 02-831-3413, E-mail, korspine@hanmail.net

13. 중앙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제12회 Chung Ang Knee Symposium

- 일정 : **2022년 12월 10일(토)**,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5층 김부섭홀
- 문의 : Tel. 02-6299-1577, E-mail, OS_Work@cauhs.or.kr

14.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Cadaver Workshop

- 일정 : **2022년 12월 11일(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5층 실용해부센터/연구소(안암동)
- 문의 : Tel. 031-780-5289, E-mail, kopas5289@naver.com

15. Intercollegiate X-ray Conference 일정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년 도	개최 월일	병 원 명
2023	6월 8일	건국대병원	2024	3월 14일	한일병원
	7월 13일	서울의료원		6월 13일	삼성서울병원
	9월 14일	한국원자력의학원		7월 11일	보라매병원
	11월 9일	순천향대병원		9월 12일	중앙대학교병원
	12월 14일	국립중앙의료원		11월 14일	일산동국대병원

(매월 둘째 목요일 저녁 6:00) (2022년 1, 2, 4, 5, 8, 9, 10, 12월 / 2023년 1, 2, 3, 4, 5, 8, 10월 / 2024년 1, 2, 4, 5, 8, 10, 12월 없음)

- 연락처 : Tel. 02-2072-2367~2368 / E-mail, drjacobkim@gmail.com

16. Interhospital Orthopaedic Conference (매월 첫째 수요일 18:30) (3, 5, 7, 9, 11월 매년 5회 개최)

년도	횟수	개최일	병원명
2023년	제152차	3월 8일	광명성애병원
	제153차	5월 3일	이화여대목동병원
	제154차	7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제155차	9월 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제156차	11월 1일	연세사랑병원
2024년	제157차	3월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제158차	5월 1일	세란병원
	제159차	7월 3일	아주대학교병원
	제160차	9월 4일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제161차	11월 6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개최 일정: 3월, 5월, 7월, 9월, 11월 연 5회, 매월 첫째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 사정상 변경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Tel. 02-2228-2180~2181 / E-mail, os@yuhs.ac



회원동정

✧ 소개합니다



- [출간] 정홍근 회원 (現차기이사장) 족부족관절 영어 교과서 'Foot and Ankle Disorders', 중국어 번역판으로 중국 내에 출간

※ 사진 설명 : (사진1) 올해 8월에 출간한 중국어 번역판 'Foot and Ankle Disorders'.
(사진2) 지난 2016년 스프링거사에서 정홍근 교수 책임 저자로 출간한 'Foot and Ankle Disorders'.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동호 회원 (서울아산병원, 現 군진의학위원) 부친상
- 김현우 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現 학술상심사위원, 학회지편집운영위원) 병부상
- 나화엽 회원 (분당제생병원, 現 개원의 및 정형의학발전위원) 부친상
- 우영균 자문위원 (現 성애병원, 대한정형외과학회회장 역임, 가톨릭의대) 모친상
- 선종근 회원 (화순전남대학병원, 現 국·영문학회지편집위원) 병부상



회의실 대관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의실 대관 안내드립니다. 회의실이 필요하신 회원께서는 아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서를 학회로 송부하여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 메일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참고] 대관 불가일 안내** (■은 예약 완료일입니다.)

❖ 2022년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23년 1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2023년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1. 평촌서울나우병원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고관절 1명
- 문의 : Tel. 010-9036-0830 , E-mail. orthoyoon@gmail.com

2.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족부 신촌1명, 강남1명
- 문의 : Tel. 010-4708-3764 , E-mail. 1stteam@yuhs.ac

3. 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 임상강사 모집

- 분야 및 인원 : 견관절 1명
- 문의 : Tel. 010-6321-8353 , E-mail. wangbaewi@gmail.com

4. W병원 임상강사 모집

- 분야 및 인원 : 수부미세 2-3명, 상지수부 2-3명, 정형관절 2-3명
- 문의 : Tel. 010-9365-3566, E-mail. whmanager@naver.com

5.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모집

- 분야 및 인원 : 슬관절 1명
- 문의 : Tel. 053-200-5628, E-mail. medos@knu.ac.kr

6.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임상강사 모집

- 분야 및 인원 : 슬관절, 고관절, 척추, 견주관절, 족부, 골종양 총6명
- 문의 : Tel. 010-2245-4908, E-mail. onedream1106@naver.com

7. 삼성서울병원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족부 1명
- 문의 : Tel. 010-9933-1531, E-mail. kissung@gmail.com

8. 고려대학교병원 임상강사 모집

- 분야 및 인원 : 견주관절 2명
- 문의 : Tel. 010-3559-9475, E-mail. cheonsh4@gmail.com

9. 이대서울병원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견주관절 1명
- 문의 : Tel. 010-9990-0404, E-mail. osahnzh@nate.com

10. 명지병원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견주관절, 슬관절 각 2명
- 문의 : Tel. 010-7920-1788, E-mail. arest117@naver.com

11.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슬관절 0명
- 문의 : E-mail. dcastle@ish.ac.kr

12.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전임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고관절 및 외상, 족부, 척추, 무릎 각 1명
- 문의 : Tel. 031-910-7512, E-mail. jungej@paik.ac.kr

13.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임상강사 모집

- 분야 및 인원 : 견주관절 1명
- 문의 : Tel. 010-6799-7670 , E-mail. shineant2@gmail.com

14. 캠프나인 전문의 모집

- 분야 및 인원 : 견주관절 2명
- 문의 : Tel. 010-5236-5577, E-mail. ybw1999@gmail.com

15. 2023년도 서울건국대학교병원 전임의 모집공고

- 분야 및 인원 : 족부족관절 2명
- 문의 : Tel. 02-2030-7746, E-mail. 20220068@kuh.ac.kr

회관 건축기금 모금 현황

▶대한정형외과학회 건축기금 모금 관련 안내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활동 증진을 위한 회관 건축을 위해 2016년도부터 건축기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모금된 건축기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2018년 2월 13일 세법 개정으로 기존에 특별회비 및 비정액 기부금에 대해서 적용되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학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근거로 한 경비 비용처리(손금 처리)는 가능함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11월 14일까지)

번호	성 합	소 속	모금 날짜	입 금 액	누적금액
1	오진록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0월 25일	10,000원	760,000원
2	안길영	포항성모병원	10월 28일	50,000원	250,000원
3	염진섭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1월 1일	20,000원	1,390,000원
현재 모금액 : 397,810,000원					

▶기부금 고액 기부자 명단

1. 건축기금(단체)

번호	단체명	소 속	기부액
1	서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서울대학교	50,000,000원
2	연세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연세대학교	50,000,000원
3	전남대학교 정형외과학교실	전남대학교	30,000,000원
4	한양대학교 정형외과교실	한양대학교	30,000,000원
5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20,000,000원
6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대구파티마병원	15,000,000원
7	전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전북대학교	10,500,000원
8	고려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고려대학교	10,000,000원
9	제일정형외과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10	경상대학교 정형외과교실	경상대학병원	8,000,000원
11	순천향대학 천안병원	순천향대학교	5,000,000원
12	한양대학교 정형외과 동문회(한정회)	한양대학교	5,000,000원

2. 건축기금(개인)

번호	성 합	소 속	기부액
1	박근호 회원	전주고려병원	24,000,000원
2	고용곤 회원	연세사랑병원	10,000,000원
3	김용욱 회원	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	10,000,000원
4	박중호 회원	부산센텀병원	10,000,000원
5	서동원 회원	바른세상병원	10,000,000원
6	신규철 회원	제일정형외과병원	10,000,000원
7	김기택 회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7,200,000원
8	정영복 자문위원	현대병원	5,000,000원

3. 학회지 발전 기금

번호	성 합	소 속	기부액
1	이춘실 교수	숙명여대 문헌정보학	20,000,000원



척추측만증 수술 후 어깨에 화상이 발생한 사례

이한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전체 진료과목 중 가장 많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는 정형외과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를 대한정형외과학회 소식지에 연재함으로써 정형외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척추측만증 수술 후 좌측 어깨에 화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수술 후 발생한 화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해주지 않아 감염 및 상처가 확대되어 추가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남/10대)은 2021년 6월 척추측만증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병원에 입원하여 다음날 수술(deformity correction & posterior fusion using MIS technique, T4-L3), Thoracoplasty, Rt(T7-T11)을 받음.

수술 후 좌측 어깨(목 뒤) 상처가 확인되었고, 수술 3일 뒤부터 좌측 어깨(목 뒤쪽, 1*1, 1*2cm)에 소독치료를 받음. 피부과 및 창상 위원회 협의 진료를 받음. 수술 6일 뒤 해당부위 옆쪽 가려움은 없으나 두드러기 난 곳에 더마툼 연고를 도포하였고, 같은 해 7월 어깨 상처에 봉합술을 받음.

2021년 7월 2차례 피부과와 협진하여 어깨 병변에 생리식염수 세척 후 EGF 새살연고 도포 및 주위 접촉성 피부염에 더마툼 연고 도포 등을 받았고, 소양감에 대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함.

2021년 8월 피부과와 협진하여 어깨부위 궤양병변(ulceros)에 stratamed 도포, 주변부 색소침착 있는 곳은 보습제만 도포하였고 같은 달 퇴원함.

퇴원 2주 뒤 피부과 외래에 내원하여 수술부위 상처를 확인 받고, 연고 처방을 받아 도포하며 경과관찰 함.

2022년 1월 ○○피부과의원에 약 6개월 전 발생한 좌측 어깨부위 흉터로 내원하였고, 저색소반과 함께 모세혈관확장 및 주변부 착색이 관찰된다는 소견으로, 브이빔레이저 및 레이저토닝 치료가 병변의 호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견을 받음.

[분쟁 쟁점]

환자측 : 수술실 내에서 왼쪽 어깨에 전기소작기 조작 미스로 보이는 화상상처가 발생함. 상처를 발견하고 호소했으나 2일간 방치 해 둔 후 소독을 받았으나 감염으로 상처는 커지고 봉합술을 받았으며, 흉터가 남아 흉터치료 및 착색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병원측 : 현재 상처의 원인은 보비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다만 수술 전 없었던 상처가 생긴 것은 의료인 측의 잘못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봉합한 것은 상처가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처 표층의 죽은 세포들이 탈락되었다고 판단하여 더 빠른 치유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고, 이를 봉합 당시, 그리고 이후 회진 및 드레싱 때에도 설명함.

[감정의견]

가. 과실유무

1. 수술 후 왼쪽 어깨 상처 발생 원인(수술 후 상처관찰의 적절성 등 포함)

신청인은 2021년 6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특발성 척추측만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제4 흉추 - 제3 요추 후방교정 유합술 및 흉곽성형술)를 시행하였음.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신청인의 왼쪽 어깨 부위에서 수술 전에 없던 상처가 수술 후에 발견되었으므로 상처는 수술 과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음.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의 급성기병원 인증 조사 기준집 “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의 5.2 수술 시 환자안전보장 중 조사항목 2에 따르면 “수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피신청인 병원은 급성기병원으로 인증원의 기준에 의거 5장과 관련하여 병원자 체의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르면 5.2의 조사항목 2에 “수술 전: time out을 하기 전 집도의와 함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와 “수술 후: 수술용 드레이프(surgical drape)를 걷은 후 전기소작기 방전판을 제거하면서 진료과 의사와 수술실 간호사가 함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라고 되어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수술 간호기록에서 왼쪽 어깨부위 상처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었음. 그러므로 신청인에 대한 수술 전,후 상처관찰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인증원 기준 및 피신청인병원의 자체 규정에 미달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의무기록에 따르면 왼쪽 어깨 상처는 수술 당일 21:29에 보호자가 발견하여 병동 간호사가 사진을 찍어 의사에게 전송한 것으로 나타남.

2. 왼쪽 어깨 상처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수술 3일 뒤 피부과 협진기록이 있으며 수술 5일 뒤 창상위원회 협진 기록이 있으므로 상처치료를 협진을 통하여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상처 발생 이틀이 지난 후에 치료가 시작되어 치료가 늦게 시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나. 인과관계

입원기간 중 왼쪽 어깨 상처 악화 및 현재 어깨부위 흉터 발생 원인

상처 발생 이틀이 지난 후에 치료가 시작되어 치료가 늦게 시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치료의 이틀 지연이 신청인의 현재 상태에 악결과를 끼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임.

상처 주변으로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하였다가 호전된 것으로 생각되며 소독약이나 상처 부위에 사용된 테이프 등에 의한 자극이나 가족력상 나타난 keloid 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됨. 적절한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생각되지 않으며 환자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소견

척추측만증 수술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왼쪽 어깨 뒷부분에 상처가 발생하였음. 상처의 발견 및 치료가 일부 지연된 점은 있으나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고 후유증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조정결과]

본 건은 조정성립 되었음.

[예방 Tip]

수술 중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할 경우에는 피부 압박손상의 가능성이 있고 전기소작기 사용 시 기기에 의해 피부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태에 관한 관찰이 중요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인증원)의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 조사 기준집 “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의 5.2 수술 시 환자안전보장 중 조사항목 2에 따르면 “수술 전,후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본 건의 경우 수술 직후 의료진이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 기록하고 화상부위의 절제술 및 일차봉합술 같은 적절한 조치 및 고지설명을 했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로 생각됨. 병원 간호부서와 협력하여 수술실 의료진 대상으로 인증원 3주기 급성기병원 평가기준 5.2 조사항목 2.의 교육, 평가 및 feedback이 필요하며 의료진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전기소작기 사용하는 수술의 경우 수술 직후 환자의 피부상태를 확인하여 즉시 조치하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료됨.



김인권 (한국 한센복지협회 회장)
(서울 에스병원 병원장)

絶纓之宴(절영지연: 이제 다 갇끈을 자르고 즐기자)

周(주)나라 초기에 楚(초)나라는 양자강 중류의 荊州(형주)를 근거로 세워진 나라다.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황하중류의 함양과 낙양을 중심한 지역을 中原(중원)이라고 하였으며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荊楚(형초) 지역을 南蠻(남만:남쪽의 미개인)이라고 하여 멸시하였다. 초의 선조는 고대의 5帝(제)중 하나인 顓頊(전욱)이며 그중 季連(계련)의 후손이다. 주 성왕은 문왕과 무왕을 위해 애를 썼던 공신들의 후손들을 추천하여 그중 熊繹(웅역)을 楚蠻(초만)지방에 봉하고 子男(자남)이라는 전답을 주었다. 그에게 芊(미)라는 성을 내리고 丹陽(단양)에 살게 했다.

초의 子爵(자작)이 된 웅역은 魯公(노공) 백금, 衛(위)나라 강숙의 아들 牟(모), 晉侯(진후) 섭, 齊(제)나라 태공의 아들 여금과 같이 성왕을 섬겼으나 나라가 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제후보다 낮은 자작의 신분이었으므로 계속 중원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 후 熊渠(웅거)는 아들 셋을 낳았다. 주나라 夷王(이왕) 때 왕실이 미약해지자 제후들이 조회를 드리러 오지 않고 서로 싸웠다. 웅거는 長江(장강)과 漢水(한수) 일대 백성들의 추대를 얻어 병사를 일으켜 庸(웅)과 楊粲(양월)을 공격하여 鄂(악)에까지 이르렀다. 웅거는 '나는 야만족이니 중원의 국호와 시호를 같이 쓰지 않겠다.'고 하며 맏아들 康(강)을 句亶王(구단왕)에, 가운데 아들 紅(홍)을 鄂王(악왕)에, 막내아들 執疵(집자)를 越章王(월장왕)에 봉했는데 모두가 강변의 초만 땅에 살았다. 그 후 주나라 厲王(여왕)이 포악하게 굴자 웅거는 여왕이 초나라를 정벌할까 두려워 자신들이 스스로 불인 왕호를 없었다.

熊通(웅통)이 조카를 죽이고 군위에 올랐다. 웅통 35년에 초나라가 隨(수)나라를 정벌했다. 수나라가 '우리에게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초왕은 '나는 만이의 땅에 거주하고 있다. 지금 제후들이 주나라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서로를 침략하거나 죽이고 있다. 내가 가진 군사로 중국의 여러 나라의 어지러운 정치에 간여하여 안정시키려 하니 왕실에다 내 작호를 높여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고 했다. 수나라 사람들이 그 때문에 주나라로 가서 초나라를 다른 제후들보다 작위를 높여 줄 것을 청했으나 왕실은 듣지 않았다. 돌아와 이런 사실을 초나라에 보고했다. 37년에 초나라의 웅통은 화가 나서 '우리 선조 죽음은 문왕의 스승으로 일찍 돌아가셨고, 성왕은 내 선조를 추천하여 작위와 땅을 주어 초나라에 살게 하니 만인이 모두 복종했다. 그러니 주왕이 작위를 더해 주지 않으면 내 스스로 높일 것이다.'라 하고는 스스로 武王(무왕)이 되어 수나라와 동맹을 맺고 돌아갔다.

이때부터 초나라의 군주들은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며 중원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끊고 주위의 약소국가들을 정벌 합병하여 중원의 여러 나라들이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 되었다.

商臣(상신)이 태자인 자신을 폐하고 동생을 세우려 하는 아버지 成王(성왕)을 죽이고 穆王(목왕)이 되었다. 목왕이 12년 만에 죽고 아들 熊侶(웅려)가 뒤를 이으니 莊王(장왕)이다. 초장왕은 춘추 5패 중 제환공, 진문공에 이어 세 번째 패자가 되어 미약해진 주나라를 대신하여 여러 제후국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잡는 역할을 하였다.

초장왕은 즉위한 후 3년이 지났으나 신하들에게 한 번도 왕으로써 명령을 내린 일이 없었다. 그가 궁성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오로지 사냥하러 갈 때뿐 이었다. 그럴지 않으면 궁성 안에서 밤이나 낮이나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술만 마셨다. 그리고 '어떤 자든지 감히 나에게 諫(간)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하리라'라는 글을 조문에 걸었다. 그러니 조정이 말이 아니었다. 진문공이 패업을 이룬 후에 그를 잇는 진나라 제후들이 계속 패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주변국인 陳(진), 鄭(정), 宋(송) 등 작은 나라들은 모두 맹주였던 晉(진)나라에 복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나라는 그야말로 고립되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또 권력 있는 신하들이 오랫동안 세력을 잡고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어느 날 그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대부 伍舉(오거)가 장왕을 알현하러 궁으로 들어갔다. 풍악 소리가 들려오는 화려한 궁궐에서 장왕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술을 마시며 미녀들의 춤을 구경하고 있었다. '대부는 술을 마시러 왔느냐, 음악을 들으러 왔느냐? 아니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왔느냐?' 장왕이 오거에게 물었다. 오거는 짐짓 황공한 양을 보이며 허리를 굽혔다. '신은 술을 마시기 위해서라든가 음악을 들으러 온 것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신은 교외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신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는데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왕께 그것을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오거는 목청을 가다듬고 이야기했다. '남산에 큰 새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나무에 앉아 날지도, 울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새가 무슨 새 인지 알려 주십시오.' (不鳴不飛:불명불비) 장왕은 오거가 풍자하는 뜻을 알았다. 그리고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대답했다. '과인은 그 새를 알겠다. 그것은 비범한 새다. 3년 동안 날지 않았더니 한 번 날기만 하면 하늘을 치솟듯 높이 날고, 3년 동안 울지 않았더니 한 번 울면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대는 그때를 기다려라.' (一鳴驚人:일명경인) 그 후 수일이 지났으나 장왕은 그 모습 그대로 밤낮 향락에 젖어 있었다. 대부 蘇從(소종)이 죽음을 무릅쓰고 초장왕에게 간하였다. 소종의 충심 어린 간청에 드디어 장왕은 즉시 악사들과 무희들을 물리고 소종과 무릎을 맞대고 마주 앉아 국사를 논했다. 그제야 소종은 장왕이 그동안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간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어서 나라가 어지러웠고, 거기에 빌붙는 자들 또한 많아서 누가 간신이고 누가 충신인지 분간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장왕은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간신과 충신을 가린 다음에 충신들과 합심하여 조정을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다. 이튿날, 장왕은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중대한 인사를 감행했으며,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이때부터 초나라는 날로 강성해졌다.

鬬越椒(투월초)는 초장왕 때 초나라 令尹(영윤:초나라 재상)이었다. 투씨는 대대로 초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투월초는 특히 초목왕 상신이 아버지 성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데 관여하여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투월초는 곰과 호랑이와 같은 외모에 표범과 송냥이의 목소리를 하고 있어 그의 할아버지이고 초성왕 때 영윤으로 초나라를 강성하게 한 鬬穀於菟(투곡어도:투누오도)는 이 투월초를 죽이지 않으면 장차 투씨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인 鬬子良(투자량)은 듣지 않고 그를 키웠다. 초장왕의 혁신에 자신의 입지가 불안해진 투월초는 반란을 일으켰고 자신의 궁술 실력을 믿고 활쏘기는 자신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자만한 투월초는 양유기와 활쏘기 맞대결에 양유기의 활에 맞아 죽어 반란이 진압되었고 투씨 일가는 멸족이 되고 말았다.

초 장왕은 투월초의 반란을 진압한 후 큰 잔치를 베푸는 데 날이 저물자 촛불을 밝히고 밤늦도록 연회를 계속하였고 총애하는 許姬(허희)를 시켜서 잔치에 참여한 신하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강풍이 불어 촛불이 일제히 꺼지자 어둠 속에서 누군가 허희의 허리를 껴안았다. 놀란 허희는 재빨리 그자의 갇끈을 잘라서 왕에게 자신에게 불경한 짓을 한 사람의 갇끈을 잘랐으니 빨리 불을 켜 범인을 잡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왕은 모든 대신들에게 갇끈을 자를 것을 명하고 그런 다음에 촛불을 켜게 하였다.

잔치가 끝나고, 허희가 초장왕이 일부러 범인을 잡지 않은 것을 불평하자, '자고로 임금과 신하가 한자리에서 술을 마실 때에는 서로 석 잔 이상을 못 마시며, 낮에만 마시고 밤에는 못 마시는 법이다. 그런데 과인은 오늘 모든 신하와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또 촛불을 밝히면서까지 마셨다. 누구나 취하면 탈선하는 것이 인정이다. 만일 그 사람을 찾아내어 처벌하고 그대의 절개를 표창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힌다면 모든 신하의 흥취가 어찌 되겠는가? 그렇게 되면 오늘 잔치를 차린 의의가 없지 않겠느냐?' 허희는 이 말을 듣고 초장왕의 큰 도량에 감복했다.

삼 년이 지나 진나라와 초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한 장수가 늘상 앞에 머물며 다섯 번 싸워 다섯 번 분투하며 선두에서 적을 물리치니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 초장왕은 괴이하여 물어 말하길 '과인은 덕이 박하고 또 그대를 다르게 대우한 적도 없는데 그대는 무슨 까닭에 이와 같이 죽을 각오로 나아가 싸우는 것인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신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지난날 술에 취해 후궁의 옷을 당기는 실례를 하였는데 왕께서 감추어주시고 참아주시어 저를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신은 죽을 때까지 왕이 감추어 주신 은덕 때문에 감히 왕께 보답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간과 뇌를 쏟아 땅에

바르고(肝腦塗地:간뇌도지) 목의 피로서 적을 씻어내기를(頸血漸敵:경혈전적) 오래토록 원했습니다. 신이 바로 그날 밤 후궁에 의해 갓끈이 끊겼던 그 사람입니다.’

장왕이 그날 밤 연회에서 베풀었던 배려심이 장왕과 초나라를 구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바탕이 된 絶纒之宴(절영지연)은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자신의 허물을 깨우친다는 의미도 담은 말이다.

董卓(동탁)은 후한 말에 靈帝(영제)의 사후 十常侍(십상시)의 난으로 어지러울 때 군대를 이끌고 낙양에 입성하여 少帝(소제)를 폐위하고 진류왕 유협을 헌제로 옹립한 뒤 세력을 잡았다. 동탁이 황제를 앞세워 정권을 농단하자 제후들은 원소를 맹주로 한 반 동탁 연합군을 결성하여 동탁과 전쟁을 벌였다. 이에 동탁은 낙양을 완전히 불태우고 서쪽 장안으로 천도를 감행하였다. 동탁의 폭정을 막을 계획으로 王允(왕윤)은 동탁의 양아들이자 막강한 장군인 여포와 동탁을 갈라놓을 계획을 세운다.

먼저 왕윤이 여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달이 부끄러워서 구름 뒤로 숨을(閉月:폐월) 정도로 아름다운 양딸 초선을 보여준 다음, 초선을 여포에게 주겠다고 말을 띄워둔다. 다음에는 동탁을 초청하여 동탁에게 초선의 가무를 보여주면서 그의 첩이 되도록 하여 그날로 동탁에게 보낸다. 초선이 동탁에게로 보내졌다는 소식을 듣고 여포가 '초선을 나에게 주기로 했는데 왜 동 태사에게 보내느냐'라고 항의하자 왕윤은 동탁이 머느릿감으로 삼으려고 한다면서 데려갔다고 거짓말을 한다. 여포는 동탁이 초선을 자신에게 보내줄 줄 알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러나 동탁은 자기의 침소로 초선을 데려갔고, 여포는 시녀에게 그걸 듣고 격분한다. 이 때 여포가 동탁에게 모른 척 하고서 초선을 흘끗흘끗 쳐다보다가 동탁이 그 사실을 깨닫고 여포를 내쫓는다.

동탁이 궁궐에서 헌제를 만나고 있을 동안 후원의 봉의정으로 달려가서 초선과 만난다. 초선은 눈물을 흘리며 원치 않게 동탁에게로 왔다고 호소한다. 뒤늦게 알아차린 동탁이 그곳에 도착, 여포를 발견하고 뒤쫓다 방천화극을 던지기까지 하지만 여포는 피하고 도망친다. 자신의 애첩인 초선을 넘보는 여포를 죽이겠다고 하자 동탁의 모사인 李儒(이유)가 초장왕 때의 절영 지연의 고사를 이야기한다. 초장왕이 진나라와 싸울 때 적군에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곧 죽게 되었다. 그때 무장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수호신과도 같이 겹겹이 두른 적병을 뚫고 들어와서 장왕을 엮고 혈로를 열어서 장왕의 목숨을 구원하였다. 장왕은 그의 몸이 몹시 부상한 것을 보고 '너는 누군데 그렇게 위험함을 무릅 쓰고 나를 구원하였느냐?' '전년의 楚城(초성)의 夜宴(야연)에서 대왕의 총희에게 갓끈을 빼앗긴 자입니다.' 하고 웃으며 죽어 갔다는 것이다. 이유는 그렇게 말하며 '더 말할 것 없이 그 용사는 장왕의 은혜를 갚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아름다운 얘기를 절영지연이라고 전래합니다. 태사께옵서 장왕과 같은 넓은 아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동탁은 머리를 숙여 듣다가 '생각을 고치었다. 여포의 생명은 살려두어라. 내가 다시는 성을 내지 않겠다.' 그 후 동탁은 초선에게 '너는 어째서 여포와 사통하느냐'고 묻자 '여포가 와서 저를 겁간하려 하여 연못에 빠져 죽으려 하였으나 여포가 붙잡아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사이 태사께서 저를 구원하였습니다.'라고 하였고 동탁은 '나는 너를 여포에게 주겠다'고 하자 초선은 울며 '저런 사나운 家奴(가노, 종놈)에게 절 주려고 하십니까?'라 하며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하니 동탁은 마음을 고쳐먹고 없었던 얘기로 한다. 이유는 장황하게 이 고사에 얽힌 이야기를 동탁에게 해주면서 차라리 초선을 여포에게 주라고 설득했다. 동탁은 '절영지회'의 의미를 생각하며 분노를 억누르며 초선을 여포에게 주고자 마음먹었다. 그러나 결국 그리하지 못하였고 여포는 왕윤 편에 서서 동탁을 죽이는데 일조하게 된다.

최근 여당 대표였던 사람이 당내의 모 인사를 三姓家奴(삼성가노)란 말로 비하한 발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삼성가노란 성이 셋인 종놈이란 말로 여포가 병주자사 정원의 양아들이었는데 동탁의 의견에 반대하는 정원을 여포가 항상 지키고 있어서 어찌할 수 없던 참에 동탁의 모사 이유가 적토마로 회유하여 여포가 정원을 죽이고 오히려 동탁의 양아들이 되었다. 원래 몸(여)씨였던 여포가 정원의 양아들이 되 丁(정)씨가 됐고 다시 동탁의 양자로 들어가 董(동)씨가 됐다는 의미로 여포를 비하한 말이다. 즉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을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정치 모리배라고 빗대서 한 말일 것이다. 절영지연의 원인이 되는 행동은 요즘 용어로 성추행이다. 예나 지금이나 성추행은 용납될 수 없고 무거운 벌로 다스려진다. 특히 왕의 애첩을 성추행 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젊음이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를 수 있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 힘이 잘 풀리면 사회와 국가의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초장왕은 자신의 총희인 허희를 성추행한 사람을 용서하는 넓은 아량을 보일 정도의 襟度(금도)를 가지고 있어 성공한 정치를 할 수가 있었고 동탁은 알면서도 그러지 못해 실패한 사람이 됐다.



출간소식

1. 학생교과서 [근골격의학] 출간안내

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필수정형외과학” 초판이 출간된 지도 벌써 19년이 지났으며 제2판이 출간된 지도 7년이 지났습니다. “필수정형외과학”이 그동안 정형외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형외과학에는 비단 수술을 위주로 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척추와 사지의 골다공증, 류마티스 질환, 퇴행성 질환, 감염성 질환 같은 다양한 내과적 치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의 명칭을 “근골격 의학” “Textbook of Musculoskeletal Medicine”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동안 의학이 여러 방면에서 발달하는 가운데 정형외과학의 발달도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의공학과 연관된 재료학과 각종 기기의 개발, 내시경수술 등 새로운 수술 기법의 발전은 실로 놀라운 것이며, 현재에도 끊임없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빠른 발전을 따라잡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골격 의학”은 이러한 학문의 발전을 모두 포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정형외과학 교과서를 한두 사람이 모두 기술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특히 담당하는 분야가 전문화와 세분화가 되어 있는 요즘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 교과서 편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전국 의과대학의 저명한 교수님들께 전공 분야별로 집필을 의뢰하여 이를 편집하여 2년 동안의 꾸준한 준비를 거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골격 의학”이 외국의 우수한 교과서들에 비해 손색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 더욱 보완과 개선을 하여 보다 더 훌륭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독자들의 질책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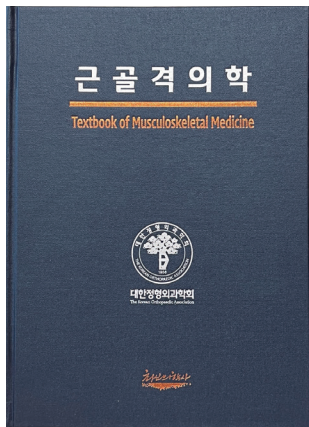
끝으로 이 책을 출판하기까지 원고를 써 주신 여러 저자들과 수정과 보완을 하여 주신 대한정형외과학회 편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원고를 정리한 편찬위원회 간사인 이화대학교 유재두 교수와 최고의 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최신의학사 엄철 사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4월
편찬위원장 이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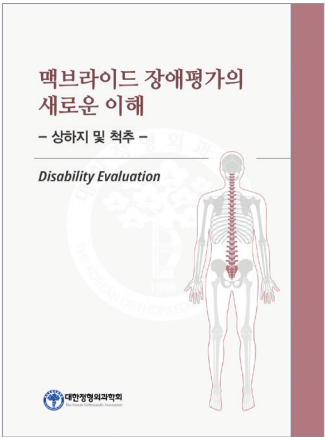
■ 주요분야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근골격계 영상의학, 재활, 골관절의 감염, 관절염, 신경근육 및 혈관 질환, 척추 질환, 건팔절, 수부 및 주관절, 고관절 병변, 슬관절 병변, 족근관절 및 족부병변, 선천성 및 발달성 소아질환, 전신적 질환, 외상, 정형외과적 치료원칙, 종양, 근골격계 통증관리, 노인의학

- 구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격 : 8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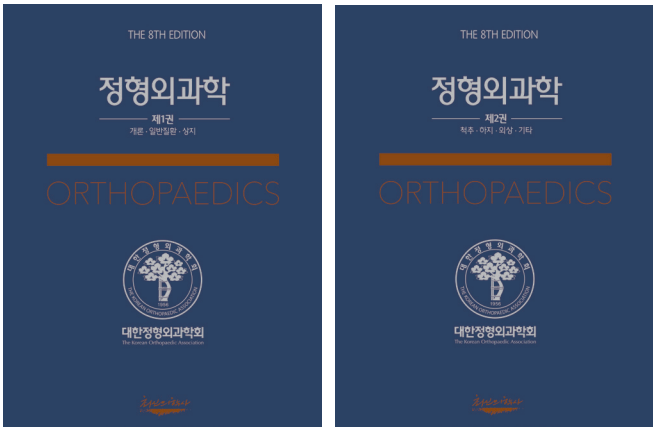


2.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 -상하지 및 척추-



- 판매처 : 대한정형외과학회 (Tel. 02-780-2765, Fax. 02-780-2767, E-mail. ortho5@koa.or.kr)
- 가격 : 70,000원 (회원가 3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대한정형외과학회)

3. 제8판 개정판 정형외과학 교과서 발간



- 구입 : 최신의학사(Tel. 02-2263-4723)
- 가격 : 360,000원

제8판은 정형외과학 전문적인 최신 지견을 담고 도표와 증례 또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제7판에 비해 20% 이상 증가된 2118페이지로 제8판 정형외과학은 전공의 및 근골격학을 공부하는 의료인들에게 풍성하고 업데이트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정형외과학 용어집 제3판

- 가 격 : 50,000원
- 구입문의 : ortho@ko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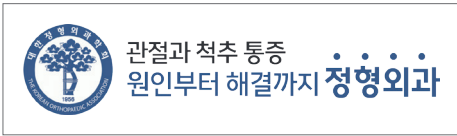
5. 「장애판정기준」- 사지및척추분야 제2판 -2012년 발간

- 가 격 : 회원 15,000원 / 비회원 30,000원
- 구입문의 : ortho@koa.or.kr



대한정형외과학회 캠페인 안내

| 대한정형외과학회 홍보 슬로건 |



| 7가지 생활수칙 캠페인 포스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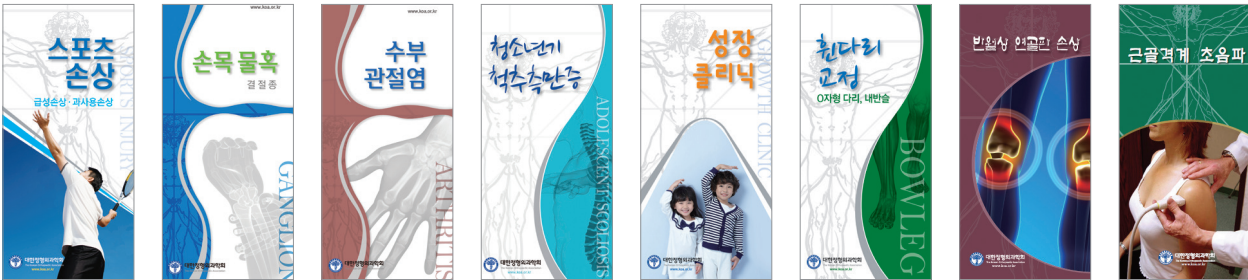
| 허위진단서 근절 캠페인 포스터 |



홍보슬로건과 캠페인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은 학회 이메일(ortho@koa.or.kr)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환별 팜플렛 안내



팜플렛 제작 중단 및 할인 판매 안내

-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는 질환별 팜플렛 총 29종을 제작하여 회원 여러분께 원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원가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100부당 20,000원(면세가)으로 단가가 인상되오니 회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팜플렛 구매 신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소식지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학회 이메일(ortho@koa.or.kr) 또는 팩스(02-780-276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구매 수량은 종류별 100부 단위로 판매합니다.
- 입금 계좌 정보 : KB국민은행 269101-04-008077 (예금주 : 대한정형외과학회)
- * 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팜플렛은 50% 할인하여 구입 가능합니다.
- ※질환별 팜플렛은 현재 제작된 재고 소진시 판매중단 예정입니다. 팜플렛 제작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beyond the Best

조인스®



연골성분 손실 억제¹⁻⁴⁾
(in vitro 및 in vivo)

안전성 프로파일의 확인⁵⁾

장기투여¹⁾ 자료 확보⁶⁾

풍부한 연구자료ⁱⁱ⁾

철저한 생산공정 관리ⁱⁱⁱ⁾

제품요약정보*

전문의약품

【제품명】조인스정200mg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이 약 1정 중 조인스정 유효성분: 위령선-팔루근-하교초30%에탄올건조엑스(40→1)(별규) ...200mg 【효능·효과】골관절증(퇴행관절질환), 류마티스관절염의 증상 완화 【용법·용량】성인 : 1회 1정을 1일 3회 경구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적절히 증감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1.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감염상태 또는 감염의 원인이 있는 환자(감염에 대한 자체 저항력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감염의 진행을 억제하는 처치를 취해야 한다.) 2)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및 수유부 (후락) 【제조사】에스케이케미칼(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149 【판매자】에스케이케미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2011. 3. 21. 개정
※처방하시기 전 제품설명서 전문을 참고하십시오. 최신 허가사항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inde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s 1. Choi JH et al., Effects of SKI 306X, a new herbal agent, on proteoglycan degradation in cartilage explant culture and collagenase-induced rabbit osteoarthritis model, Osteoarthritis Cartilage, 2002 Jun;10(6):471-8, 2. Hartog A et al., The multicomponent phytopharmaceutical SKI306X inhibits in vitro cartilage degradation and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Phytomedicine, 2008 May;15(5):313-20, 3. Lee SW et al., Clematis mandshurica protected to apoptosis of rat chondrocytes, J Ethnopharmacol, 2005 Oct 3;101(1-3):294-8, 4. Choi CH et al., SKI306X inhibition of glycosaminoglycan degradation in human cartilage involves down-regulation of cytokine-induced catabolic genes, Korean J Intern Med, 2014 Sep;29(5):647-55, 5. Jung YB et al., A four-week, randomized, double-blind trial of the efficacy and safety of SKI306X: a herbal anti-arthritis agent versus diclofenac in osteoarthritis of the knee, Am J Chin Med, 2004;32(2):291-301, 6. JoinsFinalReport_20051007(최종), Data on file, SK케미칼, [Updated 2005.10.07] 7. 조인스정 허가정보, 의약품안전나라 [Cited 2020.02.26] Available from: <https://nedrug.mfds.go.kr/>

i. 4년간의 시판후 조사결과 상 6개월 이상 장기투여(184명, 전체의 3.09%) 대상자 포함하였음.

ii. Pubmed SKI 306X 검색결과, 조인스로 진행된 연구 총 13건 [Cited 2020.02.17] Available from : <https://www.ncbi.nlm.nih.gov/pubmed/?term=SKI+306X>.

iii. Certificate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2015.08), Daejeon Regional Commissione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국·내·신·약

Resyno® OME^[inj.]

1회 투여로 6개월간 지속되는 무릎관절용 히알루론산 주사제



Smart Lubrication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윤활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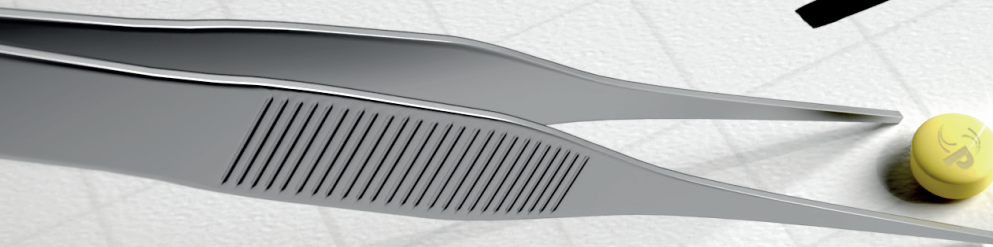
Soft Injection
일정하고 부드러운 주입력

Sufficient Duration
생체 내 지속시간 개선

레시노·원 (국) (다비닐설폰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염과 히알루론산·나트륨염액 4:1 w/w 혼합젤) 제품요약정보 【원료약품 및 그 분량】1프리필드사린지(2ml리터타) 중 • 유효성분: 다비닐설폰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염과 히알루론산·나트륨염액 4:1 w/w 혼합젤(별구) 2.04g (히알루론산·나트륨염액 40mg) / 첨가제: 염료주사침 【효능·효과】슬관절의 골관절염 【용법·용량】성인: 1회, 1관을 슬관절腔 내에 투여한다. 증상에 따라 투여 간격(6개월 이상)을 고려하여 적절히 투여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이 약 및 이 약의 구성성분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투여 관절腔에 감염 또는 심한 염증이 있는 환자 3) 투여부위의 피부에 감염 또는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다른 약물에 대해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 2) 간장애 또는 그 병력이 있는 환자 3. 이상반응 1) 이 약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반응은 발생되지 않았다. 2) 무릎관절염 환자 대상 시노비안주를 대조군으로 한 이 약의 임상시험(YY_YD302_003)에서 관절腔 투여에 따른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현빈도는 이 약 1차 투여 후 48.42%(46/95 명), 제 투여 후 47.27% (26/55 명)이었다. 중증 이상반응은 부종·어긋남 (이 약 9.47%, 이 약 제 투여 후 7.27%), 흉만 (6.32%, 이 약 제 투여 후 3.64%), 통증 (이 약 3.16%, 이 약 제 투여 후 12.73%) 순으로 보고되었다. 이 약 투여 후 7일 이상 지속된 주사부위 이상반응은 통증 5.26%, 열감 3.16%, 부종·어긋남 1.05% 였으며, 모두 특별한 처치 없이 14일 이내에 소실되었고, 제 투여 후에는 통증 10.91%, 부종·어긋남 5.45%, 열감 3.64%, 흉만 1.82%이었고, 모두 특별한 처치 없이 소실되었다. 4. 일반적 주의 1) 변형성슬관절증으로 관절腔 염증이 심한 경우는 이 약의 투여에 의해 국소염증 증상의 악화를 초래할 수가 있으므로 염증증상을 제거한 후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이 약의 투여로 매우 흔하게 국소통증, 흉만 및 종창(swelling)이 나타나므로 이 약을 관절腔에 투여한 후 48시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피하도록 하고, 국소염증을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3) 이 약은 관절腔 외에 누출되면 통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절腔 내에 확실하게 투여한다. 4) 이 약은 숙련된 의사가 투여해야 한다. ※ 본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주요 주의사항으로 일부 생략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NSAIDs, 마침표를 찍자



급성통증 + 만성통증

- 급성 통증** 열자, 근육 및 힘줄 통증, 두통, 치통, 월경통, 피부염, 급성 상·하기도 감염 등
- 만성 통증** 골관절염,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성분·함량] 1정 중 Pelubiprolen 45mg [성상] 연한 황색의 원형 서방성 필름코팅정 [효능·효과] 다음 질환의 증상이나 징후의 완화: 골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요통(허리통증), 급성통증(예: 외상 후 통증, 원발월경통) [용법·용량] 1회 1정, 1일 2회 식후 경구투여 원발성월경통의 경우, 초기 권장 투여량은 1정, 필요시 투여 첫날에 1정추가 둘째날 부터는 필요 시, 권장량으로 1회 1정, 1일 2회 투여 [포장단위] 30정, 500정/Bottle [저장방법] 차광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사용기한] 제조일로부터 36개월

Daewon 대원제약

